

‘自由에 대한 반역’ 용납 안된다

참여연대등 일부 시민단체 妄動을 규탄함

참여연대가 최근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제기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격분케 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시민들의 분노한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자, 급기야 공여지책으로 변명거리를 내놓았다. 자신의 행동이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는 공색한 논리였다. 이런 변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텐데”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언을 상기시킬 정도로 설득력 없는 논리로 또 한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궤변문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다. 일찍이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서 자신을 키워주고 삶의 모든 혜택을 제공해 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이 참여연대로 하여금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준 공동체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등에다 비수를 꽂는 ‘배은망덕한 시민단체’로 만든 것인가. 실로 참담하기 그지 없는 심정이다.

‘자유’의 진원 생각할때

이번 안보리 서한사건의 심각성은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국제사회와 유엔에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유민주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뿌리나 정체성의 근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배은망덕함’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며 시민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자유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고집불통의 존재’와 같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우뚝 서지 못했다면, 어떻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시민단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를 마치 ‘홍부전’에 나오는 제비가 하늘에서 떨어트린 ‘공짜’의 박씨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무가지(無價紙)’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만 하더라도 자유와 인권이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이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는 지금이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반추할 때다. 극좌 세력이나

특별기고



박 호 종

· 서울대 교수 · 윤리교육과

화되었다더라면,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거침없이 남침해 들어오는 북한군의 소련제 탱크 앞에 아버지세대가 겁을 먹고 무릎을 꿇었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나 인권은 산산조각났을 것이다. 더구나 좌파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자나 깨나 주체사상을 배우고 익히며 ‘김일성, 김정

진앞에서 절을 하며 매일 저녁때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하는 등, 기막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전체주의 억압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주의 사회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좌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능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유엔 안보리에 자유롭게 이메일로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죽음의 수용소’로 추방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좌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가장 아쉬운 대목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뿌리가 북한이라는 호전적 집단에 맞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보를 지켜낸 헌신과 희생에 있음을 모른다면, 그러한 무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배은망덕자’의 무지임에 틀림 없다.

자신을 키워준 공동체 등뒤에 비수 꽂아 천안함 폭침은 6·25 남침과 다를것 없어

종북주의자들은 맥아더장군을 ‘전쟁광’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으나, 만일 미국이 제때에 참전하지 못해 한반도가 적

일 어둠’을 외우는 등, ‘현대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 뿐만이 아니다. 결혼식 때도 김부자 사

지금 천안함의 문제도 6·25와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이 기습 남침했던 것이 6·25 비극의 시작이라면, 이번 천안함 사태도 북한잠수정이 기습하여 어뢰를 터뜨린 것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80년대 우리 사회의 좌파는 6·25가 복침이라느니,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남한의 유도에 의하여 남침했을 뿐이라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개발하여 학설이라고 내세웠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학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실체도 별로 없는 ‘공각지’와 같은 것들이었다. 지금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의혹 제기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공각지’와 같은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미우니 골탕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알면서도 북한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또한 그 모두가 아니라면, 외계인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뜻인지 더더욱 짐작하기 어렵다.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 새단장 (http://www.kjclub.or.kr)

대한언론인회는 회우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회우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불가능하게 제작되었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여 회우들이 적극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했다. 이번 홈페이지의 새 단장으로 대한언론인회는 모든 회우와 유관 각 단체 및 각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해 졌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대한언론인회

소개, 회우동정, 게시판, 포럼 세미나, 자료실, 회원등록과 검색, 회보 보기, 주요뉴스 보기 등이며 홈페이지에 들어와 회원가입을 한 뒤 검색하거나 글을 올릴 수 있다. 새 홈페이지에는 특히 회보에 게재된 광고등도 게재한다.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이태영 부회장과 맹태균 사이버위원장, 김선기 간사, 나용경 노상국 백일진 양성목 이대영 이상호 조전웅 위원의 노고가 컸다.

“참여연대등 소행은 반국가 행위”

大韓言論人會 국제언론기관 등에 성명서 발송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7월 1일 참여연대등 일부시민단체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 등에 의문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소행은 전문지식도 없는 철없는 소행일 뿐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 성명서를 IPI(국제언론인협회)등 해외 언론기관에 발송했다.

성명서 全文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세계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단의 객관적 과학적 조사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유엔 등에 보낸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이 같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소행이 전문 지식조차 없는 철없는 소행일 뿐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반국가 행위라고 단언하며 이로인해 실제적 진실이 왜곡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7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시민단체 이성적 활동 아쉽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믿지 않는다면, 6·25의 진실을 믿고 있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남침을 막기 위하여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을 흘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

당시에 맨주먹, 붉은 피로 자유와 인권, 우리의 땅을 지켜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좌파시민단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가능했을 것인가. 천안함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한 천안함의 진실을 외면하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천안함에서 꽃잎처럼 스러져간 46명의 호국용사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궤변론자의 변명

이번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 행위는 단순한 시민단체의 일탈행위를 넘어 국가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조장하는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동체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도 한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지속가능하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동상이몽(同床異夢)’이나 ‘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연대의 의식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국가공동체 의식’은 없다. 진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미웠고 한나라당이 혐오스러운가. 물론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특정 정권을 미워할 수도, 특정 정당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것이야말로 십인십색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터전인 국가공동체를 미워하거나 파괴하려고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신들

이 밤낮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국가공동체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는가. 반역은 왕에 대한 음모를 꾸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민주사회에도 ‘반역’은 있다. 그것은 특정정권이나 특정정당에 대한 반대를 넘어 우리 모두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공동체에 심대한 상처를 줄만큼 미워했을 때 성립된다.

민주사회에서 ‘반역’이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밤낮으로 다함께 마시는 샘물에 침을 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다같이 마시는 샘물이라면, 항상 그 샘을 깨끗이 하고 혹시 외부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 샘물에 독약을 타는지 혹은 다른 이물질을 던져 넣는지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밤에 몰래 와서 우리샘물에 구멍을 내고 이물질을 넣어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죽였고, 그 증거도 2개월간, 국제전문인력도 참여했을 만큼 확실한데, 인터넷 과담수준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그것이 불확실하며 조작되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어떻게 우리샘물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카이사르를 원로원의 의원들과 공모하여 살해한 부르투스는 그 장례식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카이사르를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그렇다면 이번에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서한을 보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적 전체주의를 더 사랑했기에 서한을 보냈다”고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에 순국한 천안함의 46용사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

라 북한의 김정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서한을 보냈다”고 할 것인가. 참여연대의 입장이 적지 궁금하다.

이제 참여연대는 자신의 행위를 ‘궤변론자’처럼 변명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 엄숙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한다. 그리하

여 북한의 호전적 집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외눈박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제공한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시민단체’로 태어나야한다. 그것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길이다. [\[4\]](#)

‘6·25 참전 동우회’ 발기인 모임 대한언론인회, 7월27일 창립총회



참전동우회(가칭) 발기인모임을 주재하고 있는 홍원기 본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오른쪽에서부터 한영섭 송두빈 황대연 홍원기 이해복 지용우 회우.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 회우들이 참석했다.. 참전동우회 결성을 위한 정확히 6·25 60주년이 되는 지난 6월 25일 가칭 참전동우회(종군기자총회(장소 추후통보)를 갖기로 결의 포함)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복 본회 고문을 비롯, 송두빈 지용우 한영섭 황대연 회우가 우 회우를 간사로 선임했다.

‘進歩’와 ‘親北’은 달라야만 한다

사망한 이데올로기 판저

이데올로기는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사망한 20세기적 가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소멸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황금시기를 누리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구차하게 걸치고 있던 사회주의라는 옷을 벗어던진 20세기 말부터 사회학자는 공산주의의 사망을 선언했고, 사상가들은 실존주의를 이룰 만한 새 사상이 없어 철학의 병살도 함께 선포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에서 생각이 살아있는 한 철학은 생명을 이어갈 것이고, 이 철학을 사회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데올로기도 인간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씨를 말리는 타살은 힘들 것이다.

질서와 혼돈의 동거 속에서 국가라는 지붕 아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적당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때로는 상생의 미덕을 출산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두 이데올로기는 서로 배격하며 타도해야 할 제로섬 게임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하며 상생의 지혜로 삼아야 할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다. 거대한 여객기의 두 날개가 공중에서 바람을 헤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날아가듯이 보수와 진보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면 우리 사회도 안전항해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한 일부 진보사회단체와 인사들의 대응은 ‘진보’를 ‘친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남한의 진보주의 세력들은 평화 평등 복지라는 진보의 가치보다 맹목적이고 감성적인 민족주의 도그마에 빠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안보만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의 양식이요, 도리다. 진보에 속한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보의 가치도 살아남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감성적인 사고에서 나온 가치를 교조로 삼으면서 자신의 주장에 스스로 몸을 묶는 어리석음의 깊은 못에 한국의 일부 진보단체와 진보주의자는 빠져 있다.

진보로 위장하며 친북 종북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시민단체나 개인들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기 앞서 북한의 김 씨 왕조 세습정권 김정일의 폭압 공포정치를 먼저 비난하는 것이 순서다.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하게 재판

받을 자유가 있는 남한의 인권을 거론하기 전에 정치수용소에 밀폐되어 있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먼저 거론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는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남한에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일어나면 침소봉대해서 선동하고 문제를 확산시킨다.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불도 없이 연기를 피우고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수확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등을 쓰았다

진보 시민단체의 중심에 서 있는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사태로 야기된 대

時 論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고문

대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데 군사 전문지식도 없는 참여연대가 불쑥 뛰어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등에도 총질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에 의혹의 이메일을 보낸 참여연대의 행태는 국제사회에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 재발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참여연대의 이번 행위는 사실을 외면한 역사관이고, 정체성 없는 국가관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체 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합조반의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유엔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고자 다자의 교무

국가 안보 문제 만은 한목소리 내야 대한민국 살아야 진보도 살아

한국 안보문제가 논의되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15개 이사국,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베트남 등 비이사국에까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표시하는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물기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고 ▲생존자에서 어뢰폭발로 인한 청각 파괴 등 부상증후가 없고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으며 ▲천안함 절단면에 폭발보다 침수 등으로 절단될 때 나타나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등 8가지 의문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8가지 천안함 침몰 의문점은 5개국 82명의 해상무기 선박 폭약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힌 내용인데도 과학적인 입증 없이 시중에 떠돌던 괴담을 정리한 수준이다. 합조단은 ▲백령도 초병의 물기둥 목격 ▲좌현 경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진술 ▲폭약 폭발시 발생하는 흩날릴 잔재가 물기둥으로 선체 전반에 검출됐다고 기술적인 조사로 이미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합조단은 바다에서 북한제 어뢰 프로펠러를 건져내고 어뢰와 천안함에 남은 화학 흔적이 동일함을 확인했다.

군 당국이 초기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과정의 문제이지 과학적 조사의 결과와는 별개다. 군의 실수는 문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초기 군 당국의 실수에서 나올 수 있는 악의적인 괴담을 사실로 착각하고 유엔

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사실과 과학적 실증에 입각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한 도덕적 신뢰를 지니고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참여연대가 그런 도덕성과 과학적 조사의 능력과 기구를 가졌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군사전문 시민단체였는가.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약방의 감초처럼 정치적 사건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0년 총선 때 낙선 낙선 운동으로 특정 정파를 돕는다는 오해를 빚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FTA반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아무리 정치집회를 즐겨갔는 진보 시민단체라고 해도 국가안보 문제만은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것이 싫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국민의 도리다. 괴담을 가지고 유엔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피나게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뒤를 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북한에 이득을 주는 행위다. 참여연대의 유엔 이메일 문건은 스스로 친북주의 단체임을 알리는 행위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시민단체다. 시민단체는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운영해야지 시민단체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정부나 기업의 도움을 받으면 관변단체나 로비단체이

지 시민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2006년 서울 종로에 자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상속을 질타하고 조사하던 대기업들에게 계좌당 500만원 이상의 건축후원금을 달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양두구육의 이윤배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성과 성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시민단체의 권력에 취해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를 다룬 유엔에 얽미 없이 끼어든 것이다. 이제는 참여연대도 70년대의 운동권 시각과 친북주의에서 벗어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돈키호테식 행동 말아야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송영길은 당선 첫 정책발표가 인천시 예산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영유아 지원의 인도적인 사업이라도 시기가 적절한지 송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북한 잠수정의 어뢰발사로 천안함이 두 동강나고 사망한 46명의 해군병사 영혼이 잠들기도 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을 돕겠다는 송영길 인

천시장 당선자의 인간으로서의 양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관에 회의를 느낀다.

인천시민이 당선되면 북한부터 도우라고 표를 주었는가 묻고 싶다. 인천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책이 먼저이지 북한 돕는 게 그다음 급한가. 송영길 씨는 대통령도 통일부 장관도 아닌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 중의 하나인 인천시장 당선자일 뿐이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고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만 빼놓고 미국 상 하의원, 유럽의회 등 세계 도처에서 북한 규탄결의안이 의결되고 있는 상황의 이시기에서 당선 첫 발표가 꼭 북한 돕기여야 하는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영길 씨의 돈키호테적 행동은 결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기가 아니다.

천안함 사태로 북한은 남한을 협박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언제라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18만명의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갖고 있다.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고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는데 사회에 영향을 미칠 시민단체나 인사들은 더 이상의 친북적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기 바란다. 지금 이 시기에 친북주의자들의 침묵은 금이다. [국무]

MB엔 “소통” 민주당엔 “수권면모” 주문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참패했고 정세균대표의 민주당은 예상밖의 대승을 했다. 그러나 언론은 보수·진보지 모두 “기성정당에 보내는 국민의 공개경고다” (조선), “여당의 처참한 패배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한 야당에도 내일이 없음을 말해준다”(한겨레)고 민주당에도 일침을 놓았다. 옳다. 민주당의 승리는 자신의 피와 땀보다는 “반(反)이명박의 반사이익”으로 잡은 로또복권이다.

한나라의 ‘오바마’는 어디에

내일에는 내일의 역사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년반 뒤에 있을 2012년 차기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웃을지는 현재로서는 하늘만이 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선거의 교훈을 잘 살려 민심을 사는 수밖에 없다 하겠다. 보수 진영으로서는 MB의 재도약체제구축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14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자기성찰의 바탕위에서 과감히 변화하도록 하겠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했다. 과감한 개혁과 국정운영시스템의 효율적 개혁을 천명했다. 그로서는 다시 없는 반전의 기회다. 이반된 민심을 다시 모아야 한다. 그도 살고 보수진영도 사는 길이다.

빛이 실정이고 실책이었고 그 요인과 개선책은 빛인가. 정치력의 창출과 국정운영체제의 혁신 등 새로운 환골탈태형의 MB 신리더십이 요구된다. 얼굴들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등 돌리는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출신)과는 손을 씻어야 한다. 최소한 ‘그 나물’의 그 밥 ‘이란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오바마’(미 흑인대통령) ‘캐머런’(영국 신세대 보수당 총리)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지도자는 누가 만들어 주는게 아니다”(조선 6월16일 사설)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조성은 보수의 경우 이대통령의 몫이다.

4대강 개발 속도조절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이대통령의 단점은 정치력의 빈곤, 오만과 독선, 소통의 위기, 혼의 부재 등이다. 박근혜위원과의 화해실패와 이에 따른 친이·친박의 당내 내분과 갈등은 이대통령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다. 자신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그 자체의 정치력을 약화시켰고 당·정·청등의 불협화음도 초래했다. 쉽지는 않겠으나 박대표와의 화해와 당내분의 봉합을 더 미룰 수 없다. 한나라당의 정치입지 강화, 의회정치 의 이니셔티브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 4대강개발, 세종시 수정문제등 현안에 대해서도 매듭을 저

야겠다. 천안함폭침 사건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어느수준이 될 지는 중국 러시아 등의 유보적 태도로써 현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유엔안보리이사회의 설명회에서는 프랑스등 대다수 이사국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측의 검사, 평가가 끝난뒤에야 안보리이사회의 대북제재수위가 결정 될 것 같다.



이 재 승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6·2 선거 결과 보수·진보지 한목소리 좌파紙 참여연대 돌출행동 옹호 한심



6·2지방선거 개표현황

한편 이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강개발사업과 소신사업인 세종시수정안은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지역 여론등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일반시민의 확실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이므로 맞춤형의 대책이 요구됐으나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세종시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보수지들은 의원들의 행적을 남기기위해서도 “의원 291명이 모두가 투표해야 한다”(중앙 6월 14일 사설)고 주장했으며, 철회를 주장해 왔던 진보지들은 정부철회(경향)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의 기록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그럴 것이면 왜 반대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충청도민의 표를 끌어모으기위해 만든 전략적 산물, 정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다”라는 서양철학의 비조 소크라테스의 말을 알겠다. 노 전대통령은 이제 고인이 돼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나 그의 작품 세종시는 살아있는 문제야로 남게됐다.

참여연대와 난형난제

진보 좌파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재앙’ 처럼 비방해 온 4대강 개발문제에 대해 이대통령은 지난15일 국정쇄신

이달 21일부터 9월까지 약100일간 대부분 중단되므로 이 동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 주교회의 등 무게 있는 종교단체들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존중, 세속사에 간여하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 본의 아니게 좌파언론들에게 이용당 할 수도 있다.

늦출수 없는 것이 천안함폭침사건이 몰아온 군수외부 개편과 안보체제의 재확립 강화다.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핵무장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초미의 현안이다. 또한 나라경제와 국민복지에 직결되어 있는 경제의 건실한 회복도 이뤄내야 한다. G-20 정상회담개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와 국가의 최대난제는 거대한 친북좌파집단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이적(利敵)행위다. 이에대한 엄격한 법치가 확립 돼야겠다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문건을 이메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발송한 참여연대의 행위야 말로 친북반한(親北反韓)의 전형적인 이적(利敵)행위다.

조선은 “도덕성에 이어 전문성도 낙제점받은 참여연대”(6월15일)라고 비하했으나 눈하나 깜짝 앓을 자들이다. 한겨레는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이다”(6월18일자 사설)며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이 천안함파문의 진실을 덮기위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소위 진보지의 간판이라는 한겨레가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수준의 주장에 맴도는 것을 보면 딱하다. 친북좌파의 딱지를 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도 “정부가 국가정체성 문제로 모는 것은 비약이다”고 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친북좌파집단의 이적성(利敵性)행위에 박수나 치고 앉았으니 한심하다.

외교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 그러나 이 전통이 증발됐다.

미국상원은 지난달 천안함폭침과 관련하여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원도 북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의회도 지난 17일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천안함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지 거의 한 달이 넘어서야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냐라 국회의원가.

친북좌파진영이 기승을 부릴수록 이명박정권의 재발진이 성공해야하는 이유가 선명해 진다. [4]

연설에서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언제나 반영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대열에 서왔던 민주당도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관련지역 민주당 단체장들이 “영산강은 개발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개발지속의지를 밝히자 박지원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치수(治水)와 용수(用水)의 범위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는 타협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진보지들은 “4대강사업, 공사중단하고 사회적합의부터 이뤄라”, “4대강사업, 지자체가 아니라 국민여론 따라야”라고 했지만 중앙일보의 “4대강사업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6월 14일 사설)처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이미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17.7%, 보(浚)설치공사 36%를 끝낸 상태이므로 사업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침 장마와 태풍을 피해 4대강 공사는



가장 빛나는 지금, 당신의 여유 뒤편 WIN CLASS

완벽한 자산관리는 더 많은 여유를 보장합니다
탁월한 자산관리를 통한 행복한 시간, WIN CLASS가 약속 드립니다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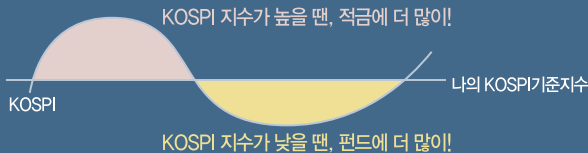
국내은행권 최초상품

적금이나 펀드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 「IBK적금&펀드」 적금과 펀드를 한번에!

「IBK적금&펀드」
에서 정한
적금과 펀드
각 1개를 가입



매월 자동이체 금액을
KOSPI 지수에 따라
사전 약정된 비율대로
적금과 펀드에 변동 납입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 이 상품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상품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민원안내 : 080-800-0119 www.ibk.co.kr(전자민원창구) • IBK기업은행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IBK고객센터 1566-2566
www.ibk.co.kr

한국 영어신문 歴史 정리-연구 “아직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4〉

회우

언론인들조차 한국 근대 신문의 역사와 영어신문의 역사가 같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1896년 독립 협회의 서재필, 윤치호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순 한글신문으로 발행하면서 그것을 모판으로 하는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했다.

영어신문의 개척자로, 언론인으로 산 일생에 대해 누구보다 긍지를 가지고 있는 전 한국일보 이사 홍순일(洪淳一, 79) 회우를 만났다. 그는 THE KOREA TIMES(코리아타임스) 기자로 출발한 후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한국일보 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등 언론계의 공식, 친목단체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땃땃한 삶을 살아라.” 가훈이다.

家訓은 ‘땃땃한 삶’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입니다.

▲ 여가가 나면 등산을 즐기는 편인데, 그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95년 초에 위암수술을 받은 후 건강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간체질로 술을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영어신문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서 자료정리도 하고, 기억나는 대로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동료와 친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영어신문사’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의 증보판도 출판사로부터 요청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책이 2004년도에 학술원 선정 기초학문 분야 우수 학술도서가 되어 약간의 출판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책이 잘 안 팔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덜었습니다.

홍순일 회우는 약 50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술한 업적과 일화, 필화사건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1954년 2월에 코리아타임스에 입사하여 1974년에 퇴사하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6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친정인 코리아타임스로 돌아와 논설위원을 7년간 했다. 모두 34년간 현직에 있었던 셈이다. 현직을 나와서도 코리아타임스에 ‘홍순일 칼럼’ ‘seoul perspective’ 등 칼럼을 계속 써 왔다. 나머지 16년은 독립언론인(independent)으로 필명을 날렸다.

마르코스 인터뷰로 시작

-언론계에는 어떻게 발을 들여놓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공과대학 조선학과를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 실로 우연입니다. 제가 일찍(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엔민사원조처(CAC) 공보과에 취직하여 보도자료 작성과 번역 일을 돕게 되었어요. 그때 언론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민사원조처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호텔 건너편 옛 상공회의소 옆에 있었



언론인은 중용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홍순일 회우.



1987년 9월 1일 언론회관에서 프를 끊는 인사들. 왼쪽부터 당시 이사장, 이관구 언론인회 초대 박헌태 언론회관 이사장 (한



1974년 가을 한국일보 순회 일환으로 사이공에서 구연 반

東南亞 頂上 연쇄 인터뷰... 74년 越南 몰락상 反維新 낙인속 正道지켜... “언론인은 중용 지켜

던 기관이며, 6·25 때 환도 후 한강도강증을 발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경향신문의 이해복, 서울신문의 김용호, 평화신문의 임광빈 씨 등을 만났습니다.

-선배님은 일찍이 영어에 능통하여 동남아 각국 정상급 지도자 순방 인터뷰를 하는 등 이 분야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 물론 서울 주재 각국대사관이나 외국 언론인, 그리고 해외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꽤나 아시아에서는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마르코스 대통령만 인터뷰하면 도미노식으로 다른 나라도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적중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월남, 홍콩 등 각국 정상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콩에서 태풍을 만나 대만의 장경국 총통과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티우 대통령

을 만났는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먼저 신문에 내보내고, 해설기사에서 월남의 현지사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승려들의 분신, 가톨릭의 정치참여, 사회몰락상을 보도한 것이 당시 유신정권에서 문제 삼아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1974년 10월 15일에 월남사태를 보도하였는데 정확하게도 1975년 4월 15일에 월남이 패망하였으니 꼭 6개월 만에 저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었어요.

-당시 그 기사가 자유언론투쟁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유신체제는 저의 월남 기사가 한국 상황을 빗대어 쓴 것으로 간주하고, 장강재사장, 김경환편집국장, 이상우종합편집부장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해 갔습니다. 저는 당시 IOC위원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던 장기영 사주가 필화사건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귀국하라고 귀뜸하는 바람에 도쿄에서 20여일간 체류했습니다. 일본 수상직을 사임한 사도 에이사쿠도 만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약 40일간 싱가포르

로 이공요 수상을 비롯하여 아시아 정상급 지도자를 죄다 만난 셈이었습니다.

‘자유언론수호 선언’ 촉발

당시 한국일보 기자들은 언론자유를 외치며 철야농성을 하게 되었고, 마침 동아일보도 서울대 농과대학생 데모사태 보도기사가 촉발되어 ‘자유언론실천 선언’(1974년 10월 24일)을 하게 되었고,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74년 가을 전국적인 언론자유수호투쟁이 전개되었다. 홍순일 회우는 이에 앞서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버니드 와이드먼이라는 미국인 자유기고가가 ‘Thought of The Times’라는 일일 에세이칼럼에 ‘기생관광’을 풍자한 글이 문제가 되어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이적행위’를 했다는 트집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언론계를 떠나도록 요구하던 정부당국이 외국인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태도를 바꾸었지만 결국 그는 1년 지난 74년 7월에 코리아타임스를 그만두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

휴가철에 떠나보는 3色 투어

올해 여행트렌드는 '느림의 미학'을 활용한 정적인 여행이다. 느릿느릿 걸으며 느림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휴가철 '3色 실버투어'를 소개한다. 북악산 서울성곽 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물통 하나면 거뜬하다. 백악마루에 서면 남산이 다가서고 발 아래 경복궁과 도심이 펼쳐진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의 관광명소와 쇼핑명소를 취향에 맞게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다면 청산도를 권하고 싶다. 아시아에서는 첫 슬로시티로 선정됐고, 지난 4월 '슬로길'이 열



글·사진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렸다. 무한 속도 경쟁을 펼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성곽

북악산(北岳山) 서울성곽(사적 제10호)길 4.3km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1968년 1·21사태 이후 통제 된지 40년 만이다. 600년 간 말없이 수도를 지켜온 성곽을 따라 쉬엄쉬엄 걸으면 취음(翠陰)이 뿜어내는 짙푸른 향기가 상큼하다. 서울성곽 트레킹 코스는 와룡공원→말바위 쉼터→숙정문→곡장→백악마루→창의문에 이르는 길이 가장 운치 있고 걷기 편하다. 반대편 창의문에서 시작하면 가파른 계단 길이 버겁고 힘들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도심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종로 02번 마을 버스를 타고 성균관대학교 후문에서 내린다. 3분 정도 올라가면 와룡공원 입구. 수도 서울에 푸른 섬처럼 떠 있는 북악산의 숲길은 시골길을 걷듯 고즈넉하다.

성곽을 끼고 산길로 접어들면 3층 높이의 나무계단이 나온다. '서울시 선정 우수 조망명소'라는 간판이 있는 전망대다. 삼청각과 길상사, 이태준 고택과 성북동 부촌,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가 한 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인다.

말바위안내소서출입증 교부

계단을 내려오면 삼청공원과 말바위로 가는 삼거리.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말바위 쉼터가 나온다. 북악의 산줄기 동쪽 끝에 있는 바위라 하여 말(末)바위라는 설이 있고, 문무백관이 말을 타고 와 시를 읊던 자리라 하여 말(馬)바위라는 말도 있다. 말바위 전망대 옆 안내소에 들러 출입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증을 준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쪽문을 빠져 백악마루 방향으로 나오면 본격적인 성곽탐방이 시작된다.

서울성곽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1395년(태조 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축성하기 시작했다. 유사시 도성수비를 위해 쌓은 성곽은 세종 때 개축하고 숙종 때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 성곽의 원래 길이는 18.2km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시기, 전차 레일을 깔고 도로를 만드느라 평지에 있던 성곽들은 대부분 헐렸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약 90%를

복원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내리막과 오르막이 이어지는 길을 약 400m 걸으면 숙정문(肅靖門)이 나온다. 누각에 오르니 숲을 거처온 청량한 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준다. 사대문 가운데 북대문인 숙정문은 큰 길이 아닌 고갯마루에 있는 게 특징. 1413년 풍수지리학자 최양선(崔揚善)이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상소를 올린 뒤 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통행을 금지시켰다. 숙정문은 음양 오행의 물에 해당돼 가뭄이 들면 문을 열었고, 홍수가 나면 문을 닫았다고 한다.

'1·21사태 소나무'에 탄흔 뚜렷

소나무 숲길을 지나 곡장으로 오르는 길은 가팔라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곡장은 자연지세에 맞춰 돌출시켜 쌓은 반원형 성곽으로 치성(雉城)이라고도 한다. 둥글게 만든 성벽 곡장에서 내려다 보면 북한산과 인왕산 꼭대기가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즐달음처 오른 성곽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곡장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잠시 성밖으로 나와 걷게 된다. 군사보호구역이라 2중 철책이 늘어서 마치 DMZ를 걷는 느낌이다. 연대별로 축조된 성 둘을 구분해볼 수 있는 안내판이 나오고 오르막길을 올라 나무계단을 타고 오르면 청운대(靑雲臺·해발 293m). 솔나무 그늘 간이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

청운대에서 백악마루는 20분 정도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가는 도중 '1·21 소나무'를 만난다.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부대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던 길목으로 소나무의 총상흔적을 톱밥으로 메워 놓았다.

최고봉인 백악(白岳)마루(해발 342m)는 북악(北岳)의 옛 이름. 넓은 공터 큰 바위에 오르니 남산 N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 경복궁·광화문·송례문이 일직선으로 내려다보인다. 백악마루에서 창의문(彰義門)으로 이어지는 하산 길 나무계단은 무척 가파르다. 창의문은 사소문(四小門)의 하나로 유일하게 온전하게



서울성곽을 따라 쉬엄쉬엄 걸으면 역사의 향기가 물어난다.



'1·21 사태' 때 소나무의 총상 흔적을 톱밥으로 메워 놓았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이국 정취가 물씬 풍긴다.

남았고, 자하문(紫霞門)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다. 이곳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계단을 내려서면 1·21사태 때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서 있다. 와룡공원서 창의문까지 1시간 40분 걸렸다.

●서울성곽 TIP

★개방시간=▲하절기(4~10월) 오전 9시~오후 3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10시~오후 3시. 퇴장시간은 오후 5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입장료는

없고 2시간 안팎 소요. ▲단체 전화예약 말바위안내소(02-765-0297~8), 창

의문안내소(02-730-9924~5). 인터넷에 약은 서울성곽 <http://www.bukak.or.kr/>

★유의사항=▲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 ▲전 구간이 금연, 금주. 애완동물은 데려갈 수 없다. ▲지정된 장소 외에는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다. 군인들이 성벽 곳곳에서 사진촬영을 제한한다.

골라보는 재미 서울시티투어버스

버스를 타고 시내 주요 관광명소를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Seoul City Tour Bus)가 인기다. 시티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고 싶은 곳만 선택하여 들를 수 있는 편이성이 장점이다. 지난 6월 16일 단오 날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에 올랐다. 도심순환코스 1층 버스를 탈까? 고궁·청계천코스인 2층 버스를 탈까? 안내소에 들러 망설이다가 청계천은 자주 보는 곳이라 도심순환코스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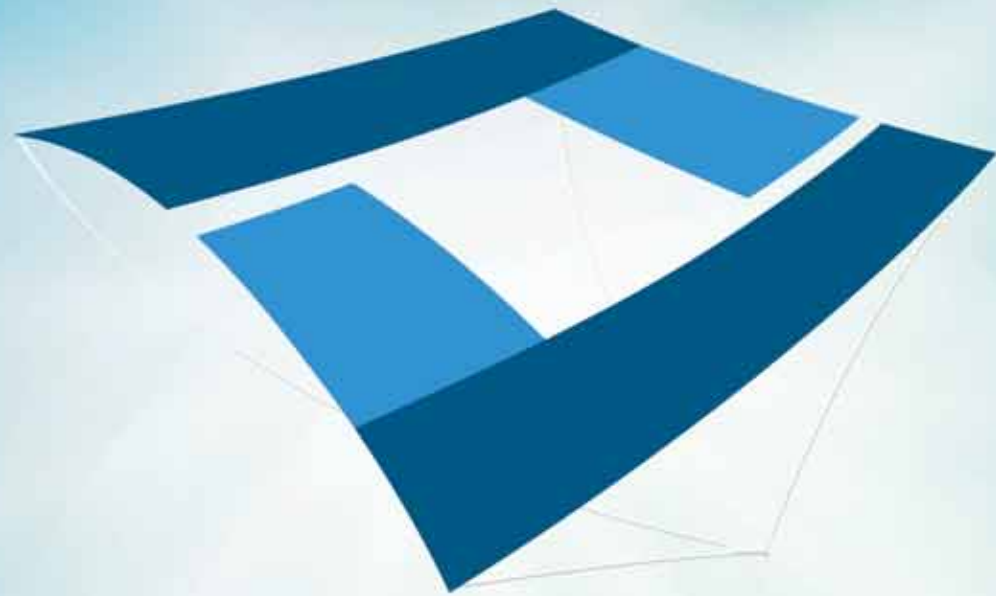
평일 오후지만 탑승객들이 30여명 된

다. 내국인 보다 일본, 중국 관광객이 많았고, 외국인 배낭족 2명도 눈에 띈다. 좌석 앞쪽에 비치한 헤드폰은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각 정류장과 주변 관광명소를 안내해준다.

버스에 탑승한 안내원은 정류소 안내뿐 아니라 박물관 휴무일과 무료입장 행사정보 등 그날그날 변하는 관광지의 상황을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어)로 설명해준다. 승객이 처음 버스에 탑승했을 때 행선지를 미리 확인해줬다가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고, 다음 버스 탑승시각

www.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은 희망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신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새 희망-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이 통합된 새로운 기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다.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가 이렇게 일갈한 까닭은 지조와 절개를 팔아 일제(日帝)에게 빌붙은 변절자, 민족반역자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충신보다는 역적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다시 나라가 어지럽다. 천안함사태와 6·2지방선거 이후 종북(從北) 좌파의 광기어린 작태가 왕조시대 말기 간신, 반역도들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나라가 어지러우니 목숨을 바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한 삶을 올곧게 살았던 선현들의 삶을 되새겨 보게 된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는 기울어가는 고려왕조 말기에 충·효·인·의로 일관된 일생을 보낸 겨레의 스승이다. 그는 과거에 세 차례나 장원급제한 천재로서 벼슬길에 나아가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정치가였으며,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는 국익을 위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탁월한 외교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리학에 통달해 당시 학계의 태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으로부터 ‘동방 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출중한 유학자였다.

그리고 정몽주는 웅대한 일에는 좀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관조(觀照)할 줄 알았던 풍류명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후학이 그를 우러러보는 점은 무엇보다도 불충과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한 번 죽음으로써 절의를 지킨 충효사상의 사표(師表)라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정몽주는 고려 충숙왕 복위6년(1337) 12월에 경상도 영일현, 오늘날의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동에서 이름 없는 선비 영일 정씨(迎日鄭氏) 윤관(云權)과 영천 이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이씨 부인이 임신 중 난초 화분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하여 처음 이름은 몽란(夢蘭)이라고 지었다. 그 뒤 9세 때 어머니가 낫잠을 자는데 용이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는 꿈을 꾸다가 놀라 깨어나 보니 몽란이 그 배나무에 올라가 놀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몽룡(夢龍)이라고 바꾸었다. 몽

주라는 이름은 관례를 치르면서 지은 이름이며, 자는 달가(達可), 아호가 포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한 데다 힘써 공부하니 곧 신동으로 이름이 났다. 19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자 불교가 흥하던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유교의 법식대로 산소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이 지극한 효

성이 조정에도 알려져 임금이 효자비를 내렸다. 정몽주는 3년상을 마친 공민왕 6년(1357) 21세 때 처음으로 국가감에서 치른 과거인 동당감시(東堂監試)에 3등으로 합격, 진사가 되었다. 또 24세 때인 공민왕 9년(1360)에는 문과 초·중·종 3장을 모두 장원으로 급제, 천재로 이름을 널리 떨쳤다.

그렇게 벼슬길에 오른 정몽주는 무신으로서도 공을 세웠다. 공민왕 12년(1363)에 동북면도지휘사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여진족을 물리쳤는데, 그 때 같이 싸운 병마사가 바로 이성계(李成桂)였다. 정몽주보다 두 살 위인 이성계는 이때부터 정몽주의 인품과 학식을 높이 평가했고, 정몽주도 이성계의 탁월한 용병술에 감탄하여 이후 두 차례나 더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물리쳤다.

정몽주는 벼슬길에 순탄하여 공민왕 22년(1373)에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유학(儒學)을 깊이 연구하고 성리학에 통달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치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누적된 불교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유학의 보급에 힘썼고, 이를 위해 개경에는 학당을,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적 윤리의 확립과 도덕의 회복을 도모했다. 또한 관리들의 부패 무능을 막고 고통 받는 백성을 구호하

정몽주의 ‘丹心歌’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몽주는 학자요 정치가였으며,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중원을 장악하고 쇠퇴해가는 원나라를 몽골 초원으로 몰아내고 있었지만, 고려는 아직도 원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조정도 친원과 친명파로 갈려 있었다. 친원파는 최영(崔瑩)과 이인임(李仁任) 등 원로 보수파가, 친명파는 이성계와 정몽주 같은 신진 개혁파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몽주가 친명노선을 취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중흥을 위한 방편으로서 보다 안전한 외교정책을 택하려는 것이었다.

우왕 12년(1386)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사건이 벌어졌다. 이성계는 여세를 몰아 최영을 죽이고 우왕도 쫓아내고 창왕을 내세웠다. 정몽주도 처음에는 이성계의 쿠데타 명분에 공감하여 정국 수습에 협력했다. 스스로 수상인 수문하시중과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일당이 우왕에 이어 창왕도 몰아내 죽인 뒤 공양왕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내세우고 국정을 전횡하자 그들과 담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날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李芳遠)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정몽주를 초대했다. 그리고 ‘하여가(何如歌)’로 알려진 이런 시조로 그의 마음을 떠보았다.

- 이란들 어떠하며 저란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령첩이 얹혀진들 어떠

하리. /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그러자 정몽주도 ‘단심가(丹心歌)’로 불리는 이런 시조를 읊어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했다.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 남 향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도저히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확인한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할 결심을 굳혔다. 공양왕 4년(1392) 음력 4월 4일, 일세의 충신 정몽주는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선죽교 위에서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최영에 이어 정몽주마저 쓰러지자 마지막 두 기둥을 잃은 고려조는 기울어가던 집이 무너지듯 마침내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성계 일파는 그 뒤 남은 충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 고려조를 뒤엎고 조선왕조를 개국했다.

개성 선죽교 위에서 붉은 피를 뿌리고 56세로 일생을 마친 정몽주의 묘소와 사당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모현(慕賢)과 능원(陵院)은 정몽주의 절의를 추모하는 한편, 그의 묘가 있음으로써 생긴 지명이다. 묘역 들머리 안내문에는, ‘전설에 의하면 선생이 순절하신 뒤 풍덕군에 묘를 썼다가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 중 면례 행렬이 용인시 수지읍 경계에 이르자 명정이 바람에 날려 이곳 묘소 자리에 떨어져 안장했다’고 쓰여 있다. 부인 경주 이씨와 합장한 묘소 앞의 비석에는, ‘고려 수문하시중 정몽주지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새겨져 있으며, 묘소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정몽주에게 문충공(文忠公)이란 시호와 함께 영의정 벼슬을 추증했지만 불사이군(不事二君)한 충신의 후손과 후학들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이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직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수명의 길고 짧음 따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추하고 비굴하지 않게, 얼마나 올곧게 살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죽어서도 두고두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장부답게, 당당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4]

언론가 소식

▲ 본회 6·25 참전회우 증언연재
국방일보는 6·25 60주년을 기해 6월 22일부터 참전 언론인(종군기자 포함) 등의 6·25참전의 생생한 증언들을 연재했다. 특별 기획으로 제작된 이 기사는 대한언론인회가 자료를 제공하고 필자들이 소장한 옛날 사진을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방일보에 기고한 본회 원로 회우는 구본건 박기병 송두빈 이경남 이해복 지용우 회우 등이다.

▲ 한국신문협회 창립 53주년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6월 2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후원기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 남북언론인 근황 실어

월간 ‘신문과 방송 6월호’(한국언론진흥재단 발행)에 남북언론인 실태가 소상하게 실렸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본회 명예회우)는 이 책 89 쪽 ‘북으로 간 언론인들’ 제하의 기사에서 북으로 간 언론인 대부분이 숙청 또는 옥중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대한언론인회가 구

준히 캠페인을 벌여온 ‘남북언론인 생사 확인 및 유해 송환 촉구 운동’을 본회 회장단의 통일부장관 예방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 조선일보 90년사 펴내

조선일보사(사장 방상훈)는 최근 ‘조선일보 90년사’를 펴냈다. 본회에 기증한 ‘조선일보 90년사’는 조선일보 역대사장과 이 신문을 거쳐간 인물 들을 실은 인명 자료집과 상 중 하 전 4권 (호화양장·4배판)으로 돼있다.



▲ 한국일보 창간56주년기념식

한국일보(사장 이종승·사진앞줄왼쪽에서 5번째)는 지난 6월 9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5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4]

회우동정

(가나다순)

그 시절 그 모습 개인전



김성한 회우 =6월 25일부터 과천국립현대미술관, 9월 29~10월 5일 연인사 아트센터에서 '그 시절 그 모습'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곽찬호(한국통일문화진흥회 이사장)원로 회우 = 3월 19일 열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10년도 정기 총회에서 종신이사로 선임.

시사 스케치 6호발행



김건이 회우=6월 16일자로 6•25 60주년 특집 기사를 다룬 시사스케치 6호를 발행.

조우회(조선일보사우회) 편집위원



김용발 회우(여약사 신문 사장)=조선일보 사우회 회보 '조우' 편집위원 위촉.

대한체육회 90년사 집필 중



고두현 회우(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창립 90주년을 맞이한 대한 체육회가 오는 7월 발간 예정인 '대한체육회사 90년' 가운데 19세기 말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체육발전과정과 대한체육회 발자취를 집필 중이다.

중국 방송시설 시찰



박기병 회우(전 GTB강원민방 사장)=중국 항주(杭州) 電視台(於 敏点監) 초청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항주 전시대와 소주(蘇州) 전시대를 방문하고 그곳 방송시설과 프로그램 제작 현황을 시찰했다.

극동방송 대담프로 출연



손주환 회우(전 서울신문 사장) = 5월 28, 29일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의 대담프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

육아 방송 대표이사 회장 취임



신경식 회우(대한일보 사우회 회장·전 국회의원) =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육아방송'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공영방송 기틀 마련 KBS서 감사패



윤주영 회우(전 문화공보부장관) = 최근 KBS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전 장관은 1973년 공사 창립당시 방송공사 법제정을 주도해 국영이던 KBS가 공영방송으로 바뀌는 기틀을 마련했다.

서재필 기념회 이사장



안병훈 회우(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재단법인 서재필 기념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고등학교 돌며 과학 분야 특강



이광영 회우(한국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지난 4월 30일 세종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과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특강

한 것을 비롯하여 5월에는 대전디자인고등학교, 서울방송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서울오산고등학교에서 지구환경 과학 기술 등을 주제로 특강.

신아일보 사우회 사무처장



이동훈 회우(전 자유총연맹 운영본부장)=최근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장기효) 사무처장으로 위촉됐다.

'부동산 가격 거품논란' 세미나



이태교 회우(서울 부동산포럼 회장)=6월 17일(목)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 호텔 3층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과 향후 전망 주제로 제 26차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최시중 회우(방송통신위원회)=6월 14일부터 23일 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무선광대역 인터넷인 와이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 남아공, 앙골라 등 3개국을 순방.

鄭萬浩 회우 별세

정만호 원로 회우가 지난 5월 29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만호 선생은 1931년 6월 3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총회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한 고인은 1950년 호남신문 편집부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동아일보 주재기자(58년), 국방일보 편집장(60년), 복음일보 기독교신보 편집국장(61년)을 거쳐 62년부터 산업경제신문으로 옮겨 편집부기자, 취재2부 차장 대우, 편집부장대우

를 지냈다. 고인은 그 후 일간내외경제 편집부 차장(80년)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한때 코리아헤럴드 관보부 차장으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다. 신문사를 떠나서는 월간 새마을금고 주간, 홍보실장으로 활약했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국편집기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쉴 새 없이 일하다 몇 년 전 갑자기 신병을 얻어 투병중이었다.



의료비 지원규정 다시알려드립니다

치료비 50만원 1회만 지급

본회 운영규정 제20조와 2006년 6월 16일 제107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료비는 50만원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2006년 7월 1일자 회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 운영규정 제 20조 : 50만 원 이상의 병원치료비가 들었거나 1년 이상의 난치, 불치, 또는 노환으로 와병중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단 치과 치료와 백내장 치료의 경우는 제외) ㉞

7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일 김한규, 3일 국기일 성백진, 4일 임덕규, 5일 김윤석 김길홍 전신병 정창기 조남조, 6일 이혜복, 7일 송정제, 8일 박재권 이성준 정종표, 9일 윤종보 홍순일, 10일 이종석 정연복, 11일 최원각, 12일 이달영 이종윤, 14일 박용운 형진한, 16일 정덕교, 17일 김명구 박광춘 한태열, 19일 이병훈 최덕모, 20일 김정남 박순신 박용근 정한상, 22일 오근영, 23일 최영식, 24일 김한영 최귀조, 25일 김귀제 김운덕(27년생) 박문두 장순재, 26일 윤주영, 28일 박응철, 29일 손일근, 30일 정용희 최희조 황순종, 31일 박승채 한양인

한국방송인회 새 임원진 구성 상임부회장 안평선 본회이사



전 현직 방송인들의 모임인 (사)한국방송인협회(이사장 최창봉·본회 명예회우) 임시총회가 6월 22일 5시 서울 동숭동 연남제에서 개최돼 장한성 회장의 연임 등 임기 4년의 제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지난 2006년 6월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한국방송인협회는 그간 방송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세미나개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국제학술포럼 주관, 한중일 TV 제작자포럼 공동주최, '한국의 방송인' '방송과 나' 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장한성 상임부회장 안평선(본회 이사·사진왼쪽) 부회장 : 유흥렬, 장명호, 정선언, 정창기(본회 회우·사진가운데), 한중광(본회 이사·사진오른쪽)

▶ 본회인사 ◀

편집위원 박석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논설위원 최병요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 자녀결혼 ◀

♥ 조덕일 회우 : 7월 3일(토요일) 낮12시 한국프레스센터 아들 결혼

♥ 김경훈 회우 : 7월 4일(일요일) 낮3시 리버사이드호텔 장녀 결혼

♥ 김경중 회우 : 7월 17일(일요일) 낮2시 L클래스 웨딩 부페 아들 결혼

▶ 연회비 납부 ◀

2010년도 김선기(09년포함), 김도진(08,10년포함), 박원호(09년포함), 이규열, 이병국(09년포함), 장두원(2011년포함), 전의식, 황우권

▶ 발전기금 ◀

지갑 총50,000원

▶ 주소·전화번호변경 ◀

★ 박정하 회우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9-6 논현S 로얄팰리스 아파트 1003호 (우 135-832) 전화 512-6877

★ 최영식 회우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금암마을 A-2 305동 904호 전화번호 031-373-2451

★ 한영택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2 은평 뉴타운 124-703 전화번호 010-5478-3744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의 첫인상은 **서울시민**이 만듭니다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30여개 대표단 1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적 행사인만큼, 모든 시민께서 시민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서울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주세요!



휴대폰 사용 에티켓을 지키는 서울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는 서울



언제나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는 서울



교통질서와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서울



저탄소 운동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서울